

사카구치 안고 『벚꽃 만개한 숲 아래』의 이야기 장치*

김정미**
jumi0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배경의 장치 |
| 2. 등장인물의 장치 | 3.1 벚꽃(櫻)의 다중성 |
| 2.1 산적의 상징 | 3.2 숲(森)의 공포 |
| 2.2 여자의 상징 | 4. 나오며 |

主題語: 사카구치 안고(Sakaguchi Ango), 초자연적 공포(Supernatural Fear), 벚꽃(Cherry Blossoms), 절대고독(Absolute Solitude), 요괴(A Goblin)

1. 들어가며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1906-1955 이후 ‘안고’로 약칭)는 1946년 『신초』(『新潮』) 4월호에 『타락론』(『墮落論』)을 발표하고, 2개월 후 『백치』(『白痴』)¹⁾를 동일 잡지에 발표하여, 일본 문학계에 다시 한 번 안고의 명성을 재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상승세를 타고 1947년에 발표한 『벚꽃 만개한 숲 아래』(『櫻の森の満開の下』)는 벚꽃과 연관된 내용을 괴기스러운 분위기와 조합하여 일본인의 벚꽃에 대한 환상을 재인식 시킨 암울한 분위기의 소설이다. 이 단편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외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82년 4월 일본과 프랑스 양국 정부의 제창에 따라 <日佛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일본문학 가운데 독자적인 내용을 담은 뛰어난 단편소설과 시를 선정하여 프랑스 최고의 문학과 연구가의 협력을 얻어 佛譯되어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 소개되었다. 이

* 이 논문은 2015년도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조성에 의함

** 세명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1) 『타락론』 발표 후, 전후(戰後) 흥미한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백치』 발표 후에는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이사카와 준(石川淳), 오다 사쿠노스케(織田作之助) 등과 더불어 전후 문학의 기수로 각광받게 된다.

短篇選에 안고의 작품으로 소개된 것이 바로 『벚꽃 만개한 숲 아래』이다. 물론 안고의 이름을 재각인 시킨 작품은 『타락론』과 『백치』이지만, 안고는 그간 몇몇 작품에서 언급한 죽음과 인간의 본원적인 절대고독의 의미를 『벚꽃 만개한 숲 아래』에서 보다 극명하고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 작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안고의 삶은 끊임없는 고독과의 투쟁이었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고독 속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했다. 젊은 시절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에 심취하여 밤낮 수행에 전념하기도 했다. 안고는 생활저변에서 감지되는 고독 뿐 아니라, 문학의 본질이 바로 고독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일례로 『문학의 고향』(『文學のふるさと』1941년)에서 문학의 근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샤를 페로의 『빨간 모자』, 교겐(狂言)의 『귀신기와』(『鬼瓦』), 그리고 『이세이야기』(『伊勢物語』) 세 작품의 공통된 요소를 언급하면서 고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보석의 차가움 같은 것은 절대 고독 - 생존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절대고독이 아닐까요?”²⁾ 이처럼 생존의 고독이야말로 안고에게는 문학의 고향이었고, 더불어 잔인하면서도 구원이 없는 세계이기도 했다. 그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고독의 심연에 빠졌다.

안고는 『벚꽃 만개한 숲 아래』 이후 『불연속 살인사건』 『파란 도깨비의 속곳을 빼는 여자』 등의 작품을 발표하지만, 이미 인간 생존의 고독과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안고는 밀려드는 원고와 씨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알코올과 각성제와 수면제 복용량도 증가하더니 결국 1949년에 동경대학 부속병원 정신과에 정신병환자로 감금되는 상황에 이른다. 퇴원 후에도 심각한 고독감에 휩싸여 자신이 지금까지 문학이라고 믿었던 작품은 거의 쓰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스캔들, 공산당 관련 비판, 경륜사건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리한 문화비평가이자 문학가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채, 고작 주간지의 대중독자들이나 주목할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때문에 『벚꽃 만개한 숲 아래』를 끝으로 안고는 더 이상 문학성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한다. 게다가 그가 1955년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여전히 이류작가로 평가되다가, 1970년대 초반에 기성세대의 허위와 독단의 가면을 벗기는 안고 사상에 대한 ‘재발견’의 시기가 도래한다. 1960년대 학생운동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안고의 작품에서 발견하고 환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안고는 다시 한 번 일본문단의 주목받는 작가로 재조명되기에 이른다.

안고의 작품은 크게 ‘자전적 에세이’ ‘현대소설’ ‘역사소설’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작품의

2) 사카구치 안고 지음, 박혜성 옮김(1995)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웅진출판, p.201

기저에는 삶에 대한 처절한 고독, 기성도덕에 대한 비판의식, 시대의 지적 통념에 대한 일련의 반항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벚꽃 만개한 숲 아래』는 실존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전승의 민화(民話)와 괴담 등을 조합하여 인간이 가진 욕망의 참상을 벚꽃의 찬연함과 대비시킨 작품으로 상기분류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만 안고가 이 소설 구상에 스즈카(鈴鹿) 관련설화를 참고하여 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말부분의 난해함을 비롯하여, 벚꽃나무 숲에 대한 공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결말 부분에 여자가 요괴로 변하는 장면, 산적이 여자를 죽였는데 두 사람 모두 꽃잎이 흐드러진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내용 모두 이 작품의 난해함을 증폭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주요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등장인물의 장치와 배경의 장치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재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 규명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산적을 공포에 떨게 한 벚꽃나무 숲의 의미와 더불어 산적과 여자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려한다. 특히 폐전의 암울한 시대적 상실감과 무기력이 팽배한 시기에 안고는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변질되며, 공포가 초래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등장인물의 장치

2.1 산적의 상징

남자 주인공 산적은 단순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큰길에 나가 도적질을 일삼고 가차 없이 사람의 목을 벤다. 그는 짐승을 사냥하듯 필요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도 없다. 하지만 벚꽃 만개한 숲에 가면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 마치 혼이 빠져 나가 온몸이 쇠약해져 눈을 꼭 감은 채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낀다. 산에서 산적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만개한 벚꽃나무 숲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일행 가운데 사무라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로 삼는다. 그런데

미모의 여자에게 숲속에서 느꼈던 유사한 공포를 감지한다. 산적은 기분이 묘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복잡한 감정변화에 익숙지 않아 특별히 마음에 깊이 새겨 두지 않지만, 이 감정은 산적이 숲에서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느낀 인간에 대한 공포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아내로 살아온 여섯 명의 목을 베고 난 후, 중압감과 피곤에 지쳐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느낀 그 공포감이 밀려온다. 이러한 공포감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눈이며 혼이 자기도 모르게 여자의 아름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한지, 뭐가 불안한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그의 혼이 모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가슴속의 불안이 파도처럼 일렁거려도 그는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략)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벚꽃이 만개한 숲 아래입니다. 그 아래를 지날 때 느꼈던 기분과 너무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비슷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묘하게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pp.147-148)³⁾

산적은 여자와 살기시작하면서 벚꽃 만발한 숲 아래에서 느끼던 공포를 일상에서도 느끼게 된다.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 날부터 산적의 영혼은 파괴해져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하지만 산적은 그 공포감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인물이다. 결국 산적은 숲에서의 무료함에 지친 여자의 간청으로 도회지로 거처를 옮긴 후, 더욱 철저히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간다. 본문에서 산적이라는 호칭은 어느새 ‘남자’로 바뀐다. 도회지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산적은 도시의 화려함과 이질감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료함에 지쳐 있다가, 밤이 되면 여자가 원하는 목을 베어온다.

남자의 집에는 이미 수십 개의 저택에서 베어 온 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온 방을 칸막이로 나누어 목을 진열해 놓았는데 남자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언제 어느 집에서 가져온 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략) 여자는 매일 죽은 사람의 머리를 갖고 놀았습니다. (pp.155-156)

여자가 시신을 희롱하는 놀이에 도취되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살인을 자행해야하는 산적은 갈수록 심한 공허감을 느낀다. 도회지 사람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교감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 게다가 여자는 밤마다 새로운 목을 원한다. 여자의 욕망은 마치 끝없는

3) 김정미·김현석·김형숙·오석륜 옮김(1996)『일본대표단편선 3』고려원, pp.147-148

이하 소설 본문의 인용은 본서에 의하며, ()의 숫자는 해당서의 쪽수를 나타냄.

허공을 직선으로 비상하는 새와도 같다고 남자는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문득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생각을 한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목이 졸리듯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명암이 반복되는 허공으로 계속 질주하는 것은 여자를 죽임으로써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 새의 형상이 지워지고, 그 새는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인가? 그리고 허공을 직선으로 날아오르던 새가 나 자신이었단 말인가? 여자를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고 마는 것일까? 난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pp.162-163)

산적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숲의 절대자로 군림하며 남의 물건과 목숨을 빼앗는 일을 거침없이 자행하던 그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매일 밤 산 사람의 목을 베어오던 일에 지쳐갈 무렵,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자신의 내면과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 산적의 내면에서 무의미한 삶에 대한 절망감이 고개를 내밀고 있지만, 산적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내면의 동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마치 눈에 발이 빠져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여자의 탐욕이 커져 갈수록 남자의 황폐한 일상은 증폭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산적은 문득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자는 새처럼 훨훨 허공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오로지 시신을 희롱하는 놀이가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된 여자와 결별하는 방법은 자신의 손으로 여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이때 산적은 비로소 일상의 무료함과 외로움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 숲을 떠나 온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숲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숲이야말로 자신의 안락한 삶의 터전이며,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인지한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숲은 더 이상 산적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 벚꽃 만개한 숲에 이르자, 숨 막히는 예의 그 공포감이 다시 밀려온다.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요괴로 변한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자신도 차가운 숲의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숲은 낙화하는 꽃잎에 묻혀 더 이상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정적의 공간으로 바뀐다.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처절한 최후를 맞은 두 사람. 만개한 벚꽃나무 숲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환희와 밝음의 공간이 아니라, 고독과 정적에 묻힌 닫힌 공간이다. 산적은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기 위한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먼 길을 돌아왔지만, 신기루처럼 정적 속으로 사라져 가는 허무한 인생의 여정을 숲에서 마감한다. 이런 의미에서 숲은 치명적인 미모를 소유한 여자의 등장으로 삶의 조화가 무너진 것처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의적 요소에 휘말린 일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공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독한 정적 속에 낙화의 꽃잎처럼 사라져 가는 주인공 산적은 여자의 살기등등한 광기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단지 암울한 상황을 감내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2.2 여자의 상징

치명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여자의 남편은 산적에게 살해당한다.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산적을 따라 순순히 그의 아내가 된다. 하지만 산적의 집에 도착하여 일곱 명이나 되는 산적의 부인을 보는 순간, 살기에 가득 찬 그녀의 마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여자는 산적에게 당장 전 부인들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다. 조용하던 숲속은 비명소리로 가득차고 이내 산적의 칼날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이후 여자는 숲의 절대자가 되고, 숲의 질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산적은 기꺼이 여자의 충실한 꼭두각시가 되어 그녀가 원하는 모든 수고와 번거로운 일을 기꺼이 수행한다.

남자는 산의 나무를 베어 그녀가 명령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만들고 있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호상(胡床)과 궤상이었습니다. 호상은 말하자면 의자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여자는 그것을 밖에 내다 놓고 양지나 그늘에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방안에서는 궤상에 기대어 상념에 잠기는 듯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남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묘할 정도로 요염하고 관능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술이 현실이 되고, 그 스스로가 그 미술의 조수가 되어 움직이면서도 미술이 빚어내는 결과에 언제나 의아해하며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p.151)

하지만 여자는 산적에게 숲에서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찼다. 여자는 도회지에서의 고상함과 미적 기준을 숲에서도 요구하며 도회지로 거처를 옮기자고 요구한다. 그나마 숲에서 여자가 요구한 것은 그녀가 도회지에서 영위하던 문화생활에 걸맞은 물품이나 장신구였다. 산적은 이런 물품에 웬지 마력과 경이로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도회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남자에게는 점점 미야코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무지에 대한 일종의 수치와 불안으로, 박식함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품는 불안이나 수치와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미야코>라는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어졌습니다. (p.152)

여자의 간청대로 도회지로 거처를 옮긴 후, 여자는 숲에서 산적이 온갖 사냥감을 잡아온 것처럼, 밤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한다. 이제 여자의 유일한 낙은 시체를 갖고 희롱하는 일이다. 여자에게 시체는 유희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놀이에 어울리는 역할로 분장시키고, 놀이에 적합한 산목숨을 지속적으로 베어오라고 요구한다. 이처럼 자신의 유희를 위해 수많은 살인을 태연하게 명령하며 시체놀이에 몰입하는 여자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 여자는 인간이 가진 공포심의 산물이 형상화 된 것이며, 산적은 공포에 제압당하는 정신적 붕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산적이 숲속의 만개한 벚꽃에서 느꼈던 막연한 공포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공포이지만, 여자의 살기에서 느끼는 공포는 한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여자의 정체가 요괴로 밝혀지고, 또 그 요괴의 실체가 바로 만개한 벚꽃이었다는 결말은 인간의 공포심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현실적 존재 여부를 떠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요괴라는 존재도 결국은 인간의 공포심이 가시화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이 ‘요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자연이거나 인공물이거나간에 공포 즉 ‘경계심과 불안’의 대상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포심이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월적 존재를 만들어 내고, 공동 환상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또한 전승시킨다. 공포에 결부된 초월적 현상·존재, 그것이 곧 ‘요괴’이다.⁴⁾

이처럼 ‘여자’의 실체는 인간이 지닌 본원적인 공포심이 만들어 낸 상징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감지하는 다양한 공포가 문학작품에서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 안고는 여자의 요괴화를 통해 인간이 지닌 공포심과 두려움의 구체적 표상을 투상(投像)한 것이다. 이 공포에 대해 이푸 투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포의 풍경 그것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 혼돈을 만들어 내는 힘이 무한히 튼 상태를 말한다. 혼돈을 만들어 내는 힘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 힘을 막으려는 인간의 시도 또한 모든

4) 고마쓰 가즈히코 지음, 박전열 옮김(2009)『일본의 요괴학 연구』민속원, p.41

것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모든 것이 공포의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혼돈을 봉해버리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⁵⁾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자는 남자의 공포가 사라졌을 때 함께 사라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좀 더 크게 뜨고 초점을 맞춰 보려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흉악한 귀신이 아니라 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운 그 여자였고, 그녀의 시체가 거기 쓰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의 힘과 사념이 모두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체 위에는 벌써 몇 개의 꽃잎이 떨어지며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p.167)

산적 내면의 공포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 여자는 흉악한 요괴로 변하여 산적을 위협하지만, 공포의 절정이 지나자 요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그저 자신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그 여자로 돌아온다. 산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내면의 모든 공포와 사념이 사라지자, 여자는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벚꽃 만발한 숲 아래 정적 속으로 사라진다. 처음부터 여자는 벚꽃나무 숲의 정적에서 파생된 존재로써 인간이 감지하는 극도의 공포를 형상화 시킨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 배경의 장치

3.1 벚꽃(櫻)의 다중성

벚꽃은 “일본인에게 있어 꽃의 아름다움만이 아니고, 꽃이 내포하고 있는 기대감, 신비감, 충실감, 융화감, 충만감 등 벚꽃을 통해서 일본인의 마음과 생활의 면면을 읽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꽃⁶⁾”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노가타리(物語)나 와카(和歌)에서 일본인에게 가장 친숙한 경물(景物)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고킨와

5) イーファー・トゥアン著, 金利光 譯(1991)『恐怖の博物誌』工作舎, p.132

이푸 투안은 1930년생 중국계 미국인으로 위스콘대학의 지리학교수이다. ‘인문주의 지리학’ ‘현상학 지리학’의 제창자로 알려져 있다.

6) 임성철(2002.12)「일본고전시가에 나타난 벚꽃의 미의식」『아시아지역연구』제5호, p.17

카슈(『古今和歌集』)에 수록된 기노 쓰라유키(紀貫之)가 읊은 와카(和歌) 한 수를 살펴보자.

さくら花散りぬる風のなごりには水なき空に波ぞ立ちける
 벚꽃 지는 여운의 바람 물 없는 하늘 연못에 파도 일어라.

이 와카는 만개한 벚꽃의 찬연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늘하늘 떨어지는 꽃잎을 마치 하늘 연못에 일렁이는 파도에 비유하며 낙화(落花)의 순간을 시각과 청각의 묘미를 살려 대비시키고 있다. 마치 허공에 일렁이는 꽃잎이 눈앞에 그려지는 시이다. 낙화의 찬란함을 노래한 이 와카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가제 특공대의 선전 문구처럼 쓰이기도 했다. 이처럼 벚꽃은 일본인의 일상에서 단순한 경물이 아닌 복합적인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벚꽃의 유래와 상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에 의하면 벚나무는 원래 집안에는 심지 않았으며, 벚꽃은 인간이 아닌 산인(山人)의 소유물로서, 그 꽃의 개화여부로 한 해 풍작을 가름하는 벼 이삭을 점쳤다고 한다. 따라서 벚꽃은 이삭(穗)점(卜)의 판단수단으로, 꽃의 개화 상태로 한해 농사를 예측하는 전조예고(前兆豫告)의 식물이다. 따라서 벚꽃이 지면 벼농사의 전조가 좋지 않은 것으로 꽃이 빨리 지는 것을 낭패로 여겼다. 이런 심정이 점점 변화해서 벚꽃이 지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염원하게 되었으며, 벚꽃이 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다.⁷⁾

그리고 사쿠라이 만(櫻井 満)은 벚꽃이 벼농사의 전조예고라는 오리구치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벚꽃을 벼이삭의 상징으로 여겨 가을 수확의 전조로 여겨왔으며, 벚꽃을 의미하는 ‘사쿠라(サクラ)’의 ‘사(サ)’는 ‘논(田)의 신(神)’ ‘곡령(穀靈)’ ‘쿠라(クラ)’는 ‘신좌(神座)’의 의미로, ‘사쿠라(サクラ)’는 ‘곡령을 맞이하는 빙목(憑木)’ ‘곡령이 머무는 꽃’으로 농경생활과 연관된 중요한 꽃이라고 한다. 곡령은 당연 지령(地靈)의 일부인 국혼의 산신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벚꽃을 주농(呪農)의 꽃, 가을 추수의 전조로 여겼던 오랜 민속생활이 있으며, 오늘날 ‘꽃놀이(花見)’로 부르는 민간전승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⁸⁾

또 와카모리 타로(和歌森太郎)는 봄철 모내기시기를 화견정월(花見正月)이라 불렀고, 농민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풍요로운 벼 생산을 흐드러지게 핀 꽃을 연상하면서 즐기는 축복의 행사가 바로 꽃놀이(花見)라고 했다. 논농사에 전념하려는 시기가 때마침 벚꽃이 만개한 시기인 만큼 그것을 그저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각각에 생업과 관련하여 앞날을 암시하는 것으로 숭상했다. 개화방법의 신비로움도 더해져서 벚꽃을 곡령(穀靈)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렇듯 벚꽃은 농민에게 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인에게 있어서 벼의 신령이 깃드는 꽃이라는

7) 折口信夫(1989)「花の話」『折口信夫全集』第2巻、ちくま文庫、pp.162-165

8) 櫻井 満(1961)「枕詞と呪農—「花散らふ」と「み雪降る」の發想」『萬葉』40号、p.54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⁹⁾

하지만 오리구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벚꽃을 벼이삭의 상징, 또는 곡령의 매개체라는 주장에 대해 사이토 마사지(齋藤正二)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다. 그는 오리구치나 와카모리가 벚꽃이 벼농사와 연관된 전조라는 언급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오리구치 시노부와 같은 천재적 직감과 상상력이 풍부한 학자가 논한 가설이라면 그것에 대한 검증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계시처럼 그것을 진리라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적 태도 혹은 윤리적 태도로서는 용인될지는 몰라도 과학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결론적으로 벚꽃은 모두 시대·사회·개인에 따라 만들어진 관계적(혹은 기능적)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¹⁰⁾ 즉 사이토는 학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여겨오던 민속학적 측면에서 전조(前兆)의 이미지로서의 굳혀진 벚꽃에 대해 정면에서 반발하며 이견을 제시했다.

고마쓰 가즈히코도 사이토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벚꽃이 신앙의 대상 혹은 신앙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일은 있어도,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의미나 기능이 특정의 문맥을 넘어 보편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소나무나 대나무를 설날 가도마쓰(門松)로 사용할 때는 신앙적 의미성을 지니지만, 산이나 들에 있는 소나무나 대나무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계속 그런 의미나 기능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물에게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때문에 벚꽃의 상징적 의미, 신앙적 의미는 특정의 사례 분석에 따라서 명확해 진다. 고대의 벚꽃이 전조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늘 신령이 깃드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의 문맥 속에서 그것을 해독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한다.¹¹⁾ 즉 벚꽃의 개화를 포함한 자연의 다채로운 현상을 인간사에서 펼쳐지는 길흉화복의 예측 수단, 혹은 상징성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벚꽃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각기 상징의 의미가 상이하다. 그러면 안고 작품속의 벚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고타니 마리(小谷眞理)는 “벚꽃은 단지 아름답고 축복을 주는 꽃이 아니라 패전의 영향을 배경으로 한 불길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소재”¹²⁾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사하라 노부오(笠原伸夫)는 벚꽃 아래의 허공을 언급 하면서 “벚꽃 아래의 허공은 안고만이 가진 개성이 고독과 광기라는 주제의 하층에서 어느새 전체를 덮고 있으며, 거기서 안고가 본 것은 인간의 근원적 양상이며, 나아가 벚꽃 아래 바람

9) 和歌森太郎(1975)『花と日本人』草月出版, pp.124-129

10) 齋藤正二(1980)『日本人とサクラー 新しい自然美を求めて』講談社, pp.189-294

11) 小松和彦(2001.4)『信仰としての櫻』『國文學』, p.42

12) 小谷眞理(2002)『それは遠く、電子の森の彼方から-坂口安吾『櫻の森の満開の下』を読む』坂口安吾研究會編『坂口安吾論集1』ゆたま書房, p.41

부는 허공은 바로 주술적 공간¹³⁾이라고 논하고 있다. 우쓰기타 요시에(檜田良枝)는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제시하고 생존 자체가 갖는 절대고독을 그린 것이며 벚꽃은 그 무대장치와 같은 것”¹⁴⁾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고의 작품에 제기된 벚꽃의 상징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절대고독’의 암시이다. 스즈키 사나카(鈴木沙那香)는 “고독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는 고향인 ‘벚꽃 만발한’ 풍경에서 사라졌다”¹⁵⁾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태평양 전쟁과 연관된 것으로 오오누키 에미코(小貫恵美子)는 벚꽃에 죽음의 이미지를 투영시켜, 새로 ‘환생’할 일본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¹⁶⁾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와타나베 미키(渡辺美木)는 안고가 그리는 벚꽃은 패전 후 일본인들에 ‘공동환상’을 환기시키는 꽃이라고 주장했다.¹⁷⁾ 또 이한정은 “벚꽃은 일본을 표상하고 일본인에게 공동환상을 환기시키는 것”¹⁸⁾이라고 하여 와타나베 미키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안고 작품 속에 묘사된 벚꽃은 만개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냉기, 고독, 허무, 광기 등을 상징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의 상징적 의미 외에 벚꽃을 작품의 주요구성 요소로 장치한 것은 인간의 공포심에 대한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안고는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몸소 겪으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고, 그래서 화려한 이면에 감추어진 공포와 두려움을 작품 속에 다양한 형태로 삽입했다. 안고가 이 작품을 발표한 시기가 종전 직후인 1947년이다. 태평양 전쟁 패배 후 사회 일각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문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고는 지금까지 주적이었던 연합군이 하루아침에 점령군으로 바뀐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본인의 적응 심리를 『타락론』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원래 일본인은 증오심이 적을 뿐 더러 지속되지도 않는 국민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낙천성이 실제 일본인의 진솔한 마음일 것이다. 어제의 적과 타협하고 아니, 속마음을 솔직히 터놓고 가까이 사귀는 일은 다반사다. 숙적이기에 한층 더 친하게 되어 순식간에 두 임금을 섬기고 싶어 하고, 어제의 적도 섬기고 싶어 한다. 살아남아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일본인을 전투에 내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3) 笠原伸夫(1979)「花の闇、花の呪」『カイエ』冬樹社、p.96

14) 檜田良枝(2001.12)「花」『國文學 解釋と鑑賞』別冊、p.88

15) 鈴木沙那香(1995.12)「安吾における「鬼」と「孤獨」-『櫻の森の満開の下』を中心に」『國文學』、p.84

16) 오오누키 에미코(小貫恵美子) 저, 이향철 역(2004)『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모멘트、p.76

17) 渡辺美木(2008)「『天狗風・櫻の森と神隠し』『言語文化研究叢書』名古屋大學大學院國際言語文化科、pp.119-131

18) 이한정(2009)「사카구치 안고의 ‘사쿠라’」『日本語文學』第43輯、p.445

결요로는 규약을 순순히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은 규약과 반대되는 것이다.¹⁹⁾

안고가 바라본 일본인은 패전에 대해 울분과 저항을 선택하는 대신, 특유의 친화력으로 패전의 결과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마치 흩어지는 꽃잎처럼 몸을 던져 지키려던 천황의 나라 일본은 어느새 점령군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로마자로 표기한 길표지판을 세우는 등 적대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후 일본인은 패전국 국민답게 자신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일본인의 패전에 대한 순종적 태도는 안고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패전 후에도 안고에게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처럼 인식되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씻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처절하고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고는 살벌한 용단폭격이 퍼붓는 도쿄에서 겪은 전쟁 체험을 『타락론』에서 매우 냉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전쟁 중의 일본은 단지 허무한 아름다움이 넘칠 듯 피어나는 거짓말 같은 이상향이었다. 그것은 인간 진실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만큼 마음편한, 그리고 장관인 구경거리는 없을 것이다. 비록 끊임없는 폭격의 공포가 있었다고 해도 생각하는 일이 없는 한, 사람은 항상 마음 편히 멍하니 뉘를 놓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한 사람의 바보였다. 가장 천진하게 전쟁과 노닥거리고 있었다.²⁰⁾

혹독한 폭격의 경험을 ‘천진하게 전쟁과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비유는 그 어느 전쟁체험의 비유보다 강력하다. 폭격기가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파괴와 살상의 현장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안고는 1942년 6월 『분게이』(『文藝』)에 발표한 「진주」(「珍珠」)에서 가미가제 특공대의 죽음을 “생환의 두 글자를 잊었을 때, 당신들은 죽음도 잊었다. 완전히 당신들은 소풍을 떠난 것이다”²¹⁾ 라고 하여 특공대원의 죽음을 벚꽃의 엔딩 장면에 비유하기도 했다. 안고는 전쟁을 저주하지만, 패전의 기운이 확연한 무모한 전쟁에서 승리를 외치며 꽃잎처럼 사라져간 특공대의 희생도 가슴 아프게 지적한다. 안고는 극심한 공습의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앗아가고 모두에게 크나큰 상흔을 남긴 전쟁과 패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갖는 이상과 현실의 허망함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벚꽃 만개한 숲과 그 아래 펼쳐진 허공의 냉기는 안고의 내면 깊숙이 박힌 전쟁의 공포에

19) 사카구치 안고 지음, 박혜성 옮김, 전계서, p.135

20) 사카구치 안고 지음, 박혜성 옮김, 전계서, p.143

21) 神谷忠孝編(1981)「珍珠」『坂口安吾 鑑賞現代日本文學』22、角川書店、p.120

대한 다중적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소설 초반에 “요즘은 벚꽃 아래라면 사람들이 모여 술 마시고 싸우곤 하니 밝고 활기찬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벚나무 아래서 사람을 빼버리면 무섭고 살벌한 풍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노(能)에서도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141)라는 단락이 있다. 봄 햇살 속에 만개한 벚꽃의 외향적 화려함과 밝음과 유쾌함 이면에 가려진, 애처롭고 어두운 벚꽃의 유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만개한 벚꽃은 슬픔과 고독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화려한 꽃잎으로 위장한 인간의 외향적인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

3.2 숲(森)의 공포

숲은 모든 생명체의 시원(始源)이며, 또 귀향의 공간이기도 하다. 숲은 인간과 긴밀한 생활의 터전으로 사람들은 숲을 위안과 휴식의 장(場)으로 여기고 삶의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숲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내준 포용의 공간이며, 풍요와 번성의 상징적 피조물이기도 하다. 『벚꽃 만개한 숲 아래』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숲이다. 산적에게 숲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과는 달리 자신의 뿌리를 깊숙이 내린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적은 숲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우위를 점하는 절대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이런 강자의 면모와는 상반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산적이 유난히 벚꽃이 만발한 숲 아래 가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설마하고 벚꽃나무 숲에 들어갔다가 혼비백산 겨우 빠져나오는 일이 많았다.

그 역시 벚나무 아래에만 가면 무시무시해져서 정신이 이상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그 후 벚꽃이 싫어졌고, ‘꽃이란 두려운 것이다. 웬지 께름칙한 것이다.’하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벚꽃 아래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웅웅 나뭇가지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은커녕 주위는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합니다. 자기모습과 발소리만이 고요하고 차갑게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바람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꽃잎이 살랑살랑 떨어지듯 혼이 빠져 나가,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은 채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눈을 감고 헤매면 이리저리 벚나무에 부딪히니 그럴 수도 없어 더욱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pp.142-143)

하지만 벚꽃나무 숲의 공포는 이미 고전문학에도 언급되어 있다고 안고는 설명한다.

벚나무 아래서 사람을 빼버리면 무섭고 살벌한 풍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노(能, 일본의 가면극)에서도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이 납치당하자, 그 자식을 찾으려고 미친 듯 돌아다니다가 벚꽃이 만발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멀리 멀리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라다 보이는 그늘에서 자식의 환상을 그리다 미쳐, 그 벚꽃 속에 묻히게 죽어 버린다(여기는 소생의 사족)는 줄거리인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벚나무 수풀 아래에 사람의 모습이 없다면 남은 건 그저 무서움뿐입니다. (pp.141-142)

노(能)의 세계에서도 사람 없이 벚꽃나무만 서있는 무대는 공포의 장치이다. 즉 벚꽃나무 숲의 명암은 사람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안고의 소설에서 벚꽃나무 숲의 명암은 여자의 등장으로 더욱 을씨년스러운 공포의 공간으로 바뀐다.

벚꽃 숲은 만개해 있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그는 여자의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했던 예리한 날카로움에 머리를 베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혼란에 빠져 버렸습니다. 사방에서 벚나무 아래의 냉기가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홀연 그의 몸이 바람에 내동댕이쳐지며 투명하게 변했고, 그 주위를 바람이 웅웅 스치고 지나가더니 어느새 차갑게 얼어 붙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그는 그저 허공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p.155)

벚꽃나무 숲의 공포는 여자의 등장 전(前)과 후(後)로 나뉜다. 여자를 만나기 전 숲의 공포는 초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였지만, 여자를 만나고 난 후 숲의 공포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마치 자신의 영혼이 파괴될 것 같은 살기의 공포이다. 결국 산적은 여자의 살기(殺氣) 충만한 공포의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 결국 그의 영혼은 떨어지는 꽃잎처럼 산산이 허공으로 흩어진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이 공포가 보편화 되면 그 공간에 공포의 가시적 대상이 생성된다고 한다. “인간은 다양한 것에 공포를 느낀다. 왜 공포를 느끼는 것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공포의 대상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파괴하거나 사멸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²⁾ 고 한다. 즉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자신의 존재를 파괴시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또한 “공포는 마음에 있지만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를 낳는 객관적인 위험인자는 외부의 환경에 존재한다.”²³⁾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산적이 만개한 벚꽃 숲에서 느낀 막연한 공포는 처음에는 벚꽃이라는 대상에 투영되었지만, 중국에는

22) 박전열 옮김, 전계서, p.40

23) 이우-투안著, 金利光 譯(1991), 전계서, p.138

여자의 살기에 투영된다. 결국 여자가 ‘요괴’로 변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처음부터 산적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가와 가즈스케(小川和佑)는 이 작품을 ‘원령 이야기’²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공포심이 요괴로 형상화 된 작품이라는 것을 지적한 주장이라고 본다. 한편 고마쓰는 일반적인 요괴의 생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요괴’란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며,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조우한 사람에게 불가사의하다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품게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결과 ‘초자연’의 활동으로 귀결시키게 되는 현상 사물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민속사회가 가지는 두 개의 설명 체계, 즉 ‘초자연’을 개입시키지 않는 설명체계와, ‘초자연’을 개입시킨 설명체계,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정체불명의 것이 사람들의 인식과정에서 제일단계의 ‘요괴’가 되는 것이다.²⁵⁾

안고는 벚꽃 만개한 숲을 초자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공포의 이미지를 ‘여자’의 잔혹함으로 표현했다. 즉 공포를 낳게 하는 객관적인 위험인자를 벚꽃 만개한 숲으로 설정하고 흐드러진 꽃으로 절정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살의의 섬뜩함을 동시에 숲에 설치했다. 즉 이 작품에서 숲은 벚꽃이 만발한 초절정의 상태가 인간의 불안이나 경계심을 자아내는 치명적인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벚꽃 만개한 숲은 패전을 맞은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 것이라 추측된다. 패전이후 연합군이 점령군이 되어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일본인이 생존을 위해 벌여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벚꽃나무 아래의 알 수 없는 공포감으로 장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공포는 안고가 에세이에 자주 언급한 생존의 고독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문학의 고향』에서 안고는 암흑의 고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생존의 고독이라든지 우리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잔인하고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나는 사실, 것처럼 잔인하고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흑의 고독에는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다. 우리들이 살아 있는 몸은, 길을 잃으면 구원받을 집을 예측하고 걸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고독은, 언제나 광야를 헤맬 뿐 구원받을 집을 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인한 것, 구원이 없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도덕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도덕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²⁶⁾

안고는 현실의 삶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산적도 숲을 떠나 도회지에서 절망적인 일상을 보낸 것처럼. 안고는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을 갈구했다. 그래서 모든

24) 小川和佑(1993)『櫻と日本人』新潮社, p.120

25) 박전열 옮김, 전계서, p.197

26) 사카구치 안고 지음, 박혜성 옮김, 전계서, p.202

것의 시작을 숲으로 설정하고 결말에서도 주인공 산적과 여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곳도 벚꽃 만개한 숲으로 설정했다.

그는 여자의 얼굴 위에 떨어져 있는 꽃잎을 치워 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여자의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아래에는 수북이 쌓인 꽃잎뿐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꽃잎을 치우려던 그의 손과 전신도 꽃잎이 닿자마자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꽃잎과 차가운 허공만이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p.168)

산적과 여자의 죽음으로 벚꽃 만개한 숲은 광기가 난무하는 혼돈의 공간에서 절대고독과 허무를 끌어안는 포용의 공간으로 변모하는데, 이것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생존본능에 매달린 처절한 삶을 영위했던 군상의 최후를 상징하는 결말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벚꽃의 절정기처럼 극으로 치닫던 전쟁의 광기도 낙화의 꽃잎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암울한 고독의 상처를 봉합하는 치유의 장(場)으로 변화해 간다. 아마도 안고는 긴 세월 자신과 일체가 된 긴 고독의 허공에서 빠져나오기를 갈망했는지도 모른다.

4. 나오며

사카구치 안고의 『벚꽃 만개한 숲 아래』의 주요 배경이 되는 벚꽃 만개한 숲에는 주요장치가 숨어있다. 안고는 벚꽃 만개한 숲을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초자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것과 상반되는 공포의 이미지를 ‘여자’의 잔혹함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산적이 만개한 벚꽃 숲에서 느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공포라 할 수 있다. 이 공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여자의 살기에서 파생되는 공포는 산적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즉 안고는 산적을 파멸로 이끄는 여자의 요괴화를 통해 인간이 지닌 공포심과 두려움의 구체적 표상을 투상(投象)한 것이다. 이때 공포를 초래하는 객관적인 외부요인을 벚꽃 만개한 숲으로 설정하고, 흐드러진 꽃잎 등 절정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살의를 벚꽃나무 숲에 동시에 설치했다. 이것은 고전문학 세계에서도 언급된 자연의 초절정 상태가 심리적으로 인간의 불안이나 경계심을 자아내는 측면을 참고하여 설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는 인간의 공포심을 형상화 한 것이며, 산적은 공포에 제압당해 정신적 붕괴를 초래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즉 ‘여자’는 인간이 지닌 본원적인 공포심이 만들어 낸 상징적

캐릭터로서, 초자연적 환경에서 감지하는 다양한 공포가 이 소설에서 여자라는 인격체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만개한 벚꽃 숲의 막연한 공포는 처음에는 벚꽃이라는 대상에 투영되지만, 종국에는 여자의 살기에 투영된다. 결국 여자가 ‘요괴’로 변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처음부터 작가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안고는 자신이 처한 전후(戰後)의 일상이 마치 인적이 끊긴 숲처럼 처연하고 공허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극심한 공습의 폭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죽음의 공포와 맞서야 하는 잔혹한 전쟁과 패전을 경험하면서 살아남은 자의 허망함도 절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고에게 있어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구원의 장(場)이 바로 벚꽃나무 숲이었다.

【參考文獻】

- 김정미·김현석·김형숙·오석륜 옮김(1996)『일본대표단편선 3』고려원
 고마쓰 가즈히코 지음, 박전열 옮김(2009)『일본의 요괴학 연구』민속원, p.41
 사카구치 안고 원작, 박혜성 옮김(1995)『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웅진출판, p.201
 오오누키 에미코 지, 이향철 역(2004)『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모멘트, p.76
 임성철(2002.12)「일본고전시가에 나타난 벚꽃의 미의식」『아시아지역연구』제5호, p.17
 이한정(2009)「사카구치 안고의 ‘사쿠라」」『日本語文學』第43輯, p.445
 イーファー・トゥアン著 金利光 譯(1991)『恐怖の博物誌』工作舎, p.132
 檜田良枝(2001.12)「花」『國文學 解釋と鑑賞』別冊, p.88
 折口信夫(1989)「花の話」『折口信夫全集』第2巻ちくま文庫, pp.162-165
 小川和佑(1993)『櫻と日本人』新潮社, p.120
 笠原伸夫(1979)「花の闇、花の呪」『カイエ』冬樹社, p.96
 小谷眞理(2002)「それは遠く、電子の森の彼方から-坂口安吾『櫻の森の満開の下』を読む」『坂口安吾論集』1、ゆたま書房, p.41
 小松和彦(2001)「信仰としての櫻」『國文學』2001.4月, p.40
 神谷忠孝編(1981)「珍珠」『坂口安吾 鑑賞現代日本文學』22、角川書店, p.120
 櫻井 満(1961)「枕詞と呪農」-「花散らふ」と「み雪降る」の發想『萬葉』40号, p.54
 斎藤正二(1980)『日本人とサクラ-新しい自然美を求めて』講談社, pp.189-294
 鈴木沙那香(1995.12)「安吾における「鬼」と「孤獨」-『櫻の森の満開の下』を中心に」『國文學』, p.84
 渡辺美木(2008)「『天狗風-櫻の森と神隠し』」『言語文化研究叢書』名古屋大學大學院國際言語文化科、pp.119-131
 和歌森太郎(1975)『花と日本人』草月出版, pp.124-129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28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要旨>

사카구치 안고 『벚꽃 만개한 숲 아래』의 이야기 장치

김정미

사카구치 안고의 『벚꽃 만개한 숲 아래』의 주요 배경이 되는 벚꽃 만개한 숲에는 주요장치가 숨어있다. 안고는 벚꽃 만개한 숲을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초자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것과 상반되는 공포의 이미지를 ‘여자’의 잔혹함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산적이 만개한 벚꽃 숲에서 느꼈던 알 수없는 두려움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이 공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여자의 살기에서 파생되는 공포는 산적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즉 안고는 산적을 파멸로 이끄는 여자의 요괴화를 통해 인간이 지닌 공포심과 두려움의 구체적 표상을 투상(投像)한 것이다. 이때 공포를 초래하는 객관적인 외부요인을 벚꽃 만개한 숲으로 설정하고, 흐드러진 꽃잎 등 절정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살의를 벚꽃나무 숲에 동시에 설치했다. 이것은 고전문학 세계에서도 언급된 자연의 초절정 상태가 심리적으로 인간의 불안이나 경계심을 자아내는 측면을 참고하여 설정한 공간이다.

The Story Telling Systems in <Under the Woods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by Sakaguchi Ango

Kim, Jung-Mi

There are various story systems hidden in the woods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the main background of <Under the Woods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by Sakaguchi Ango. Ango sets the woods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as a supernatural boundary which shows ultimate beauty, and sets dreadful image contrary to a supernatural boundary by female cruelty. The fear which a bandit feels without reason is one for supernatural phenomenon. This fear naturally disappears when he gets out of the woods, but the fear from female threatening leads the bandit to destruction. By making a woman into a goblin who leads the bandit to ruin, Ango described essential fear of human beings. Ango sets the woods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as objective and outer factors which cause fear, and at the same time sets in the woods threatening contrary to the beauty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These story systems devised by Ango show up in previous Japanese classics, and they are based on the idea that the ultimate beauty could cause human beings fear or wariness psychologically.